

# 1930년대 북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

- 이민소설을 중심으로 -

이 은 숙\*

## In the 1930's Spatial Image of Korean Immigrants to Pukkando

- on Migration Novels and Short Stories -

Eun Sook Lee\*

**요약** : 연구의 목적은 최서해, 박계주, 안수길의 이민소설을 중심으로 1930년대 북간도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를 조사하여, 이것이 이주와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최서해, 박계주, 안수길은 리얼리즘 작가로서 많은 장편과 단편 소설을 통해서 당시 북간도라는 이민공간에 있었던 조선이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따라서 이들 소설은 그 자체로서 1930년대 북간도의 지리적 현상이며 동시에, 지리적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를 보면, 이주 전 이미지와 이주 후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주 전 이미지는 북간도 공간에 대한 지식과 그들이 접한 정보를 중심으로 형성된 객관적 이미지이다. 이것은 이주 후 삶의 공간으로서의 개인적 체험과 고향의식을 통해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이미지로 변화되었다. 객관적 이미지는 이주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었고, 주관적 이미지는 북간도에서의 적응과 정착과정에 영향을 주었다.

**주요어** : 문학지리학, 이민소설, 공간이미지, 고향의식, 북간도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immigration novels and short stories in order to identify how the Korean immigrants perceived the landscape of Pukkando in 1930's. The writers, Choi, Park and Ahn whose literary works are mainly influenced by realism, describe the lives of Korean immigrants in foreign countries in their novels and short stories. They are particularly focused on the hardship and misery faced by the immigrants in the Pukkando regio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n the literary works, one can observ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by the immigrants about the region between before and after their migration into Pukkando from Korea. The objective image regarding the region held by them before migration is transformed into a subjective one via a certain spatial filtering process including home-consciousness and individual experiences of each immigrant in the real life of this region.

**Key Words** : literary geography, immigration novel, spatial image, home-consciousness, Pukkando

## 1. 서론

### 1) 연구목적 및 의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을 자신의 삶의 무대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을 집단의 공동 생활영역으로서 지닌 일반적 특성보다는, 개인의 삶의 공간으로 지각되는 개별적 특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입증된 同質地域에 대

해서 서로 상이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간이미지도 개별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 이는 사람들의 공간인식이 객관적 지역성이나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닌 어떤 意識이나 의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공간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의식이나 의미를 통해 여과시킨 후,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공간과 관련된 개인의 의식이나 의미는 개인의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부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경험세계를 통해서 구성되는데 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향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특정 공간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참조한다. 이러한 공간지각 행태를 Fullilove(1996, 1515)는 고향의식(home-consciousness)의 결과라고 하였다. 그는 고향의식을 친숙함, 애착, 정체성 등 일련의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고향을 자신과 연관시키고자 하는 의식이라고 말한다.<sup>1)</sup> 한편 Terkenli(1995, 325)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고향의식이란 주변 환경을 개인화하고, 장소를 확인하고 고향으로 전환시키는 조절수단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고향의식을 통해서 개인은 그의 삶의 공간을 익숙함과 익숙하지 않음, 고향과 같음과 다름, 고향 사람과 같음과 다름 등으로 구별하여 고향과 타향 사이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그와 관련된 장소를 정의한다고 한다. 위의 두 정의를 보면 사람들이 장소나 공간을 지각하는 행태는 고향의식에 여과된 내용을 고향과 타향으로 요약하고, 이미지화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사람들의 공간지각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Porteous(1985, 117)는 지리학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각종 기록과 문학작품을 이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는 문학작품이 특정 장소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특히 리얼리즘 문학은 특정 사회의 배경과 장소를 사실적이며 문제 중심으로 형상화한다. 그러므로 리얼리즘 문학은 한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함께 개인이나 집단이 공간을 지각하는 방법과 한 공간에 대하여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가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리얼리즘 문학작품의 이러한 가능성에 비추어 북한도 조선이민의 삶을 형상화한 대표적 리얼리즘 작가 崔曙海, 朴啓周, 安壽吉의 이민소설들을 중심으로 북한도라는 이민공간이 조선이민에게 어떻게 지각되었는가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1930년대 북한도 지역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와 그것이 이주와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을 밝혀려는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조선이민의 증가

와 함께 간도지역에 우리 문화지역이 뚜렷이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존속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 지역 조선족의 한국 입국 증가, 이 곳과 한국과의 무역량 증가, 북한과의 인접성으로 인한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도 조선민족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조선민족의 북한도 이주와 정착에 관한 정치적, 역사적 연구는 상당히 많으나 조선이민의 북한도 지역에 대한 공간지각 행태, 공간이미지, 그것의 이주와 정착 과정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sup>2)</sup>

특정 시대의 한 장소에 거주하던 집단의 공간 지각이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한 장소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장소에 대한 정서적 편향성과 이것을 인간중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3)</sup>

## 2) 연구방법

역사학이나 사회학적 기록, 인류학적 연구, 문학 작품 등은 사람들이 특정 환경이나 공간에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구속력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가운데 특히 문학작품은 그러한 구속력의 유형을 찾아내고, 공간에 대한 주관적 접근방식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문학작품은 그 허구성 때문에 학문이 추구하는 객관성이라는 틀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과 환경 또는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 경험의 본질을 객관적 틀 안에서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치나 의미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학작품은 사실이나 상상을 기초로 해서 인간집단의 사회적 삶의 여러 양상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 기술된 내용의 분석은 사회과학자나 지역연구자에게 이전에 간과했거나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았던 체형의 유형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sup>4)</sup> 즉 문학은 인간의 지각, 태도, 가치를 기술하며, 또한 특정한 지역의 다수의 사람들

의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이다.<sup>5)</sup> 문학은 이와 같이 삶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문학의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Woolf는 “창작에는 사실보다는 진실이 담겨 있으므로 여기에 담겨있는 진실을 찾아내고, 지속할 가치가 있는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였다.<sup>6)</sup> 또한 Pirie(1982)는 “하나의 문장으로 거리의 소리, 냄새, 장면, 색깔 등 감각으로 지각된 장소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며 문학의 지리적 가치를 평가하였다.<sup>7)</sup> 그는 문학은 도시의 삶이나 환경이라는 드라마를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시키는 것이며, 절망과 투쟁을 언어로 나타내고, 의미를 재해석하며, 공간적 특성이나 공간분화와 같은 현상과 개인과의 관계를 명백히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지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문학작품을 경관에 대한 해석이나 지리적 현상 그 자체로 간주하여 문학작품을 지리적으로 연구하는 일 분야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이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이다. 문학지리학은 미국의 Salter와 Lloyd(1977), Tuan(1976, 1978), Pocock(1981) 등에 의해서 널리 확산되었다. 이들은 지리학의 탐구대상은 공간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자연적, 공간적 현상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구체적인 의미를 인간중심적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문학작품을 탐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소설을 통해서 서울 근교의 도시화 과정에 대하여 도시민이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가를 조사한 계인희(1991)와 리얼리즘 소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공간 지각 방식에 초점을 맞춘 이은숙(1993; 1995; 1996; 1998) 등의 연구가 있으며, 지리교육의 도구로서의 이용 방법을 제시하려한 일부 연구가 있다.

한편 이민소설에 대한 국내의 다른 연구는 아직 없으며, 외국의 연구로는 미국의 대표적 이민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를 중심으로 이주의 배출력, 흡인력, 이주의사 결정과정, 정착과정 등을 분석한 Salter(1981)의 연구가 있다. 한편 Lanegran(1972)은 ‘대지의 거인(Giant in the Earth)’이라는 소설에서 프레리 경관에 대한 등장 인물의 태도가 형성되는 과정, 그것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개별화된 인물들의 프레리 경관에 대한 개별적 반응이라는 것 등을 관

찰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지리학 연구에 있어서 문학작품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훌륭한 지역소설의 저자는 그가 쓰고 있는 지역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소개한다. 왜하면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장소에 대한 태도와 서로 다른 사람의 견해도 제시하여 준다(중략). 우리는 그들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우울과 절망을 공유하게 된다.<sup>8)</sup>

문학작품의 이러한 잠재력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동질공간에 대한 상이한 지각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1930년대 당시 북간도에 거주하던 조선문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북간도 조선이민의 공간지각, 공간이미지, 그들에게 고착되어 있는 고향의식, 삶의 현실, 정착 과정 등을 제시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崔曙海, 朴啓周, 安壽吉의 이민소설은 시간적으로 1930년대, 공간적으로 북간도를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들로서 時空의으로 일치된다는 점에서 북간도 공간이미지의 유형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 작가의 경험을 통해 쓰여진 이들의 소설은 북간도의 자연환경, 문화확산 과정, 인구이동 경로, 정착과정, 생업 내용 등이 형상화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지리학적 주제를 담고 있다.

## 2. 북간도와 이민문학

### 1) 간도(사잇섬)

19세기에 이미 간도는 조선영토로 인지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지역의 범위는 1920년의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후에 비로소 구체화되었다. 간도지역은 두만강 중류로부터 하류에 이르는 北間島와, 두만강 상류에서 압록강 하류에 이르는 西間島로 구분된다. 안수길의 北間島<sup>9)</sup>에 나타나는 지리적 범위를 보면, ‘백두산(白頭山)을 주봉으로 하는 장백산맥(長白山脈)에서 서북(西北)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것이 노야령(老爺嶺)의 산줄기다. 이 노야령 산맥으로 북간도는 안도(安圖), 화전

(樺甸), 돈화(敦化), 영안(寧安), 동녕(東寧)의 다섯 현(縣)에 인접해 있고, 남으로는 두만강(豆滿江)을 격해 함경북도(咸鏡北道), 동편으로는 노령의 연해주(沿海州)와 경계를 삼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간도(間島)란 본래 사잇섬을 의미한다. 이 섬은 중성부의 서쪽으로 십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만강의 하중도로서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일종의 사주이다. 그 당시에 두만강이나 압록강 변에는 이러한 섬이 많았지만 경작이 불가능한 불모지였기 때문에 두만강 대안의 청나라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인이 월경할 구실로 삼았던 '사잇섬 농사'란 이 섬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두만강 변의 대안에서 행해지는 월경농업의 불법성을 위장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말에 불과하다. 다음의 北間島의 한 귀절을 보면, 사잇섬 농사의 실상과 상징성을 잘 나타낸다.

사잇섬이란 이곳, 중성부(鍾城府) 중에서 동쪽으로 십리쯤 떨어진 이 동네 앞을 흐르는 두만강 흐름속에 있는 섬이었다. 흙사 고구마 형국으로 생긴 사잇섬은 모래로 이루어진 사주(沙洲)다. 주위가 십리가 될까? 땅이 겹어 기름질 것 같으나 모래로 이루어진지라 곡식이 되지 않았다. 물 역에 몇 군데 새밭이 있었으나, 싹자리의 재료는 물론, 아무 쓸모가 없었다(중략).

'사잇섬' -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 그대로 이름이 되고 만 것이랄까?

'사잇섬 농사'란 여기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에 내세우는 표방에 지나지 않았다. 불모(不毛)의 섬에서 어떻게 곡식이 나랴? 그러므로 사잇섬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사실은 대안의 청국땅에 건너가는 것이었다(北間島).

간도지역에는 이미 13세기에 남만주의 요하 유역에서 조선사회가 성립되었고, 17세기에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전란의 포로로 강제 이주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인의 자발적 이민이 시작된 것은 1860년대 부터이다. 이 때는 관북지방의 한발로 조정에서 청나라에 조선 飢民의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청나라는 이민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고, 조선 조정도 越江을 묵인하였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 延邊 지역으로 조선이민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중국인 지주들은 소작인으로 조선인을 고용하고, 토지·종자·주택을 제공하여 경지 개간을 유도하였으며, 조선인의 대량 이주를 묵시적으로 허가하였다. 1907년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인이 북간도 지역 인구의 80%를 점유할 정도였다고 하며, 이들은 여기에서 뚜렷한 문화지역을 형성하고 있었다.

1920년대 이후 일제의 압박을 피해 많은 조선사람들이 간도지역으로 이주하여 왔으나 대부분 도시에서 철도와 광산 노동자로서 생업을 이어가거나 불법적인 직업에 종사하여 조선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었었다. 1931년에 중국은 간도의 조선인이 일본과 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同化政策을 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중국식 의상 착용, 조선인과 일본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폐쇄, 비귀화인의 경작지와 주택 몰수, 토지구매와 토지차용 금지 등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착지로부터 추방되며, 황무지의 개간도 허가되지 않았다.

1932년 만주국이 세워지자 많은 중국인이 만주로 이주하여 인구의 95%를 점유하였다. 상대적으로 조선인은 소수민족이 되어 중국과 일본 세력아래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sup>10)</sup> 같은해 일본은 만주 점령을 목적으로 이민정책의 실시한 결과 조선이민이 다시 증가되었다. 그들은 정치·사회적으로 불리한 현실에서도 황무지를 개간하고, 자녀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며, 조선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 2) 이민소설과 북간도

1930년대 조선의 리얼리즘 소설은 작중 인물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표출되는 객관적 현실의 총체성을 반영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sup>11)</sup> 당시 북간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 경험을 가진 문인들을 중심으로 리얼리즘 문학의 한 장르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간도문학(間島文學)이며, 간도문학에는 이민소설이 포함된다.<sup>12)</sup> 이들 이민소설은 조선이민이 북간도에서 겪은 가혹한 체험, 식민지 청년층이 경험한 사회적 변화, 고향의 어린 시절의 추억,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부적

응, 정착과정, 부적응에 따른 재이동, 유랑과 귀향, 일탈과 범죄, 민족 차별,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 간의 갈등,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충격과 반작용 등을 소재로 한다. 崔曙海, 朴啓周, 安壽吉 등과 북간도의 관계, 그리고 분석대상이 된 그들의 작품은 다음과 같다.

#### (1) 崔曙海

최서해의 본명은 학송(鶴松)으로 1901년 1월 21일 함경북도 성진군 임명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 한문 공부를 하며 소학교를 졸업한 것 이외에는 뚜렷한 학력은 없다. 1910년 지방 관리를 지내며 농사를 짓던 부친이 먼저 간도로 갔고, 모친과 함께 그도 1918년 간도로 가서 유랑생활을 하며 나무장사, 두부장사, 부두 노동자, 음식점 배달부 등 최하층민 생활을 하며 전전하였다. 1923년 귀국하여 회령역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1925년 '조선문단(朝鮮文壇)'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활동을 시작하였으나 1932년 위장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는 민중의 생활과 투쟁,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 식민지 자본주의화가 진행된 조선의 현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sup>13)</sup> 경향문학(傾向文學) 작가 가운데 하나이다.<sup>14)</sup> 그가 쓴 작품의 주인공은 간도이민, 부랑자, 노동자, 등 고립된 인물들로 그들은 죽음과 연결되는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특히 吐血, 故國, 脫出記, 紅焰, 해돋이 등의 소설은 북간도 조선이민이 겪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북간도의 풍요를 누리는 중국인 지주와 극도로 빈곤한 조선이민의 생활을 대조하며 조선이민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있다.

#### (2) 朴啓周

박계주는 1913년 북간도의 용정에서 출생한 후, 1927년 영신중학교 입학하였다. 1929년 그는 간도일보 신춘문예모집에 단편 赤貧이 입선된 이후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1933년 영신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신학교에 입학한 후 기독교 계통의 잡지를 편집하는 한편, 이광수를 사숙한 후 1938년 작가로 등단하여 많은 작품을 계속 발표하였다. 1938년에 출판된 장편소설 殉愛譜를 비롯하여 1940

년대 초까지 處女地, 死刑囚, 母土, 地獄에도 꽃은 핀다. 등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이민소설을 발표하였으며, 1966년에 사망하였다. 박계주는 그가 창작한 이민 소설에서 개척정신, 현실고발, 민족의 지 등의 주제를 반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와 사회가 작가에게 부과하는 사명을 철저히 의식한 리얼리즘 작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5)</sup>

#### (3) 安壽吉

안수길은 191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1920년에 일가족과 함께 북간도 용정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조선인이 경영하는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였으므로 북간도 지방에 거주하던 조선이민의 삶에 대한 정보와 문제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남겼으나, 1977년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노력은 북간도 조선인들의 생활을 발굴하여 그것을 작품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소설 속의 허구의 인물들은 실제로는 조선이민의 전형이다.

北間島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북간도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소설은 현재 중국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초기 이주과정과 정착과정이 사실적으로 기술된 생활사이며 受難史이다. 조선 대 중국, 조선 대 일본, 중국과 일본사이에서의 조선, 중국·일본·러시아 사이에서의 조선 등 여러 형태의 민족적 갈등 관계 속에서 이한복 일가가 겪는 경험은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조선 이민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소설에서 북간도 지방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등장 인물들의 적응 방식과 북간도의 지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가족사를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서 기술하였다.

### 3. 객관적 이미지와 이주 의사 결정에 미친 영향

#### 1) 객관적 이미지의 형성

객관적 이미지는 이주 전에 조선사람들이 공유

하고 있던 북간도에 대한 영토인식과 그곳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객관적 이미지란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주 전에 그들이 접한 북간도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그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비옥한 토지의 소유 가능성, 식량과 목재의 풍부, 금의 발견과 같은 다양한 기회, 자유로운 삶에 대한 보장 등이다.

북간도가 우리 영토라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1860년대에 있었던 백두산 정계비의 답사 결과, 그곳이 조선영토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北間島는 북간도의 지리적 인접성과 조선 사람 사이에 있었던 영토인식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예예, 보아 디릴 거는 나라에서는 어찌서 강 건너 우리 땅인 무인지경에다가 옥토르 두구서리 몇 해르 내리 백서 영 굽게 찍어느나는 겐메다.” (중략)

지금은 청국의 영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 증거로 할아버지는 백 50여 년 전에 세운 정계비(定界碑)를 보면 알 일이라고 했다.

“그 밋돌에는 강 건너가 우리 땅이라고 똑똑히 새겨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제 땅이라고 똑똑히 밝혀 놓은 국토를 남의 땅인 양 생각하고 도강 금지령을 내리고 얼씬도 못하게 하는 썩어 빠진 조정을 입을 모아 타메하였다(北間島).

19세기 말 이와 같은 북간도에 대한 영토인식 변화는 조선사람에게 이주동기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수많은 조선 사람이 이주하여 민족, 언어, 관습, 가치, 주거양식, 생활양식 등에서 조선과 문화적 동질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사람들은 이곳에 대하여 친밀감을 갖게 되었고, 무한히 넓은 풍요로운 대지와 금을 비롯한 온갖 광산 자원의 보고라는 점이 알려져 있어, 조선사람들에게는 ‘富에 대한 기대의 땅’이었고, 현실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었다. 특히 1930년대 조선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식량이었다. 그런데 북간도의 풍부한 대지와 비옥한 토양에 대해 인식이 높았으므로 이

것이 조선사람의 북간도 이주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음을 보면, 북간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비옥한 경지의 자유로운 소유와 풍성한 수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는 이민열차 안에서 피곤한 몸을 흔들이우면서, 타국의 색다른 풍물과 정취를 눈앞에 제 마음대로 그려보았고 또한 동경하여 마지않았던 것이다. 구냥(姑娘)이 사는 곳, 고량(高粱)이 무성한 곳, 처녀림(處女林)으로 바다를 이룬 곳, 끝없는 광야, 언제나 흰눈을 이고 있는 준령, 봄이 늦고 가을이 빠른 설국(雪國), 그리고 마적(馬賊)이 날뛰는 대륙, 그보다도 거름 주지 않아도 곡식 잘되는 기름진 대지, 농사를 쉽게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낙토…… 이렇게 순서 없이 주위들은 생각을 눈앞에 찬란히 전개시켜보면 미상불 한 번 보고 싶은 곳이기도 했다(母土).

조선사람들은 북간도를 기름진 땅과 풍부한 식량 이외에도 연료용, 가옥 건축용 목재가 풍부한 풍요의 땅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사람들은 조선과 북간도를 박토와 옥토, 그리고 식량이 부족한 지역과 식량이 풍부한 지역으로 대조시켜 생각하게 되었다. 北間島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간도의 토양에 대한 조선사람들의 인식과 풍요의 이미지를 기술하고 있다.

같은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물인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은 토질이 어찌면 그렇게도 다를까? 이쪽이 박토인데 반해 대안 지방은 시꺼먼 땅이 기름지기 그대로 옥토였다(중략). 그 동안이 2백여 년, 나무가 자랄대로 자라고, 그 잎이 떨어져 쌓였다가는 썩고, 썩은 나뭇잎이 땅속에 파묻히고… 이러기를 2백년을 되풀이하였으니 지력(地力)은 조금도 소모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땅이었다. 어찌 기름진 옥토가 아닐 수 있을 것인가?

쟁기나 보습, 괭이로 파 뒤집으면 시꺼먼 흙이 농부의 목구멍에 침이 꿀꺽하고 삼켜지게 했다. 씨를 뿌리지만 하면 곡초가 저절로 쑥쑥 소리라도 들릴듯이 자라 올라갔다. 거름이 필요 있을 까닭이 없었다. 한두 번 기름만 매어 주면 다듬이 방망이만큼 탐스러운 조 이삭이 머리를 수그렸다. 옥수수 한 자루가 왜무우같이 컸다. 감자가 물씬 흙속에서 사탕무처럼 마음놓고 살이쪘다. 수수, 콩…(北間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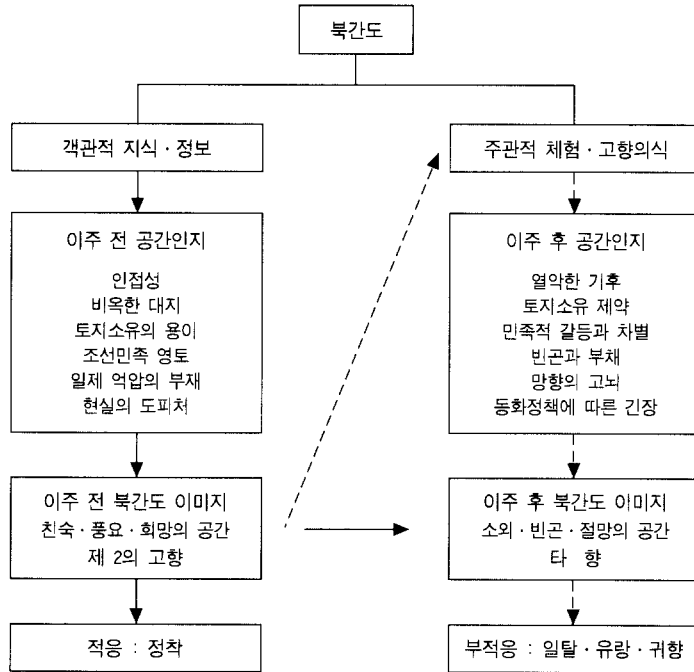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이민의 북간도에 대한 공간이미지 형성과정

한편 북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사람의 이미지에 는 황금이 들어 있다. 북간도에는 금을 비롯해서 풍부한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조선이민 가운데는 砂金鑛을 비롯해서 광산 지역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황금과 관련된 소식이 고국에 전해지고 있었다. 다음은 조선인 광부들이 집결했던 광산촌의 경관을 기술한 것이다.

산협의 넓은 계곡에는 여기 저기에 마치 공동묘지의 무덤처럼 금을 일어난 모래 언덕들이 수백 수천을 헤이도록 커다랗게 쌓여져 있었으며, 그 밑에서는 계곡의 물을 끌어 들어 제가공 열고 납작한 널함지에 모래를 담아 물에 이는 수많은 광부(鑛夫)들이 보인다.

그들 광부들은 모두 지금 마적부대가 습격 온다는 것을 모르고 날이 어둡도록 앉아 모래를 일어서 물에 떠내려 보내고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를 긁어모아 헝겊에 싸서는 주머니에 넣고, 또 모래를 긁어 담아 일기 시작하곤 한다(地獄에도 꽃은 핀다).

북간도는 이와 같이 황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의 땅이며, 더구나 조선과 달리 식민지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상향으로 '자유천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조선 역사를 자유롭게 배우고 익히며, 조선 문화를 향유할 있다고 생각했다. 殉愛譜의 작중 인물인 조선 지식인 최백산은 다음과 같이 조선이민의 북간도 이미지를 대변한다.

최백산이도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잡히게 되어 피해 가는 망명객도 그 이민의 때 속에 섞여 있었으며, 일본 정치 밑에서 살기 싫거나 또는 일본의 압박을, 학정을 피하여 자유천지 간도에서 마음대로 우리글과 우리 역사를 배우게 하려고 자제를 이끌고 가는 지사들도 있었던 것이다(殉愛譜).

## 2) 객관적 이미지와 이주의사 결정과정

인구집단이 특정 지역에 대해 간직한 공간이미지는 인구집단의 이주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 거주지에 배출요인이 많을 경우, 그 사회의 제도나 관습에 따른 장애요인이 많다

하더라도 목표지의 긍정적 측면은 이주의사 결정에서 흡인요인으로 작용한다(그림 1). 마찬가지로 1930년대 조선의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는 배출력으로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길을 택했다. 그렇지만 북간도라는 땅의 실체와 그곳에 대한 공간이미지가 그들을 유인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동은 없었을 것이다. 다음을 보면 당시 조선의 가뭄과 기근, 그리고 절망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들에게 이주 아닌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보이는 것이 어떻게 부은 얼굴들이었고, 들리는 말이 오늘도 몇명이 아사했다 하였다. 좀더독이 들끓었고, 이항자(異邦者)가 속출했다. 이미 텅빈 국고(國庫), 구휼(救恤)의 방도가 막연했다(중략).

가뭄이 아니라도 이 고장은 땅이 메말랐다(중략). 하물며 2년 내리 계속되는 흉년에 있어서라. 남녀 노소가 산으로 들로 나무 뿌리나 나물을 캐러 다녔다. 먹을 수 있는 거면 땅 속에 있건, 땅 위의 거건, 움트는 싹이건, 줄거리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칩뿌리가 캐어지고 소나무가 꺾질 이 벗겨졌다.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뒷방에 시어머니처럼 해소병으로 툭툭거리는 남녀 노소가 수도룩했다. 살길을 찾아 이 고장을 떠나는 사람, 거지가 되어 가족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졌다(北間島).

일반적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목표지의 긍정적 요인은 중요하게 고려되고, 부정적 요인은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Salter(1981)의 연구에서도 분노의 포도의 Joad 일가가 이주 목표지 선정과정에서 같은 경우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의 밭과 과일, 토지 점유의 기회, 풍요에 대한 소문과 함께 추악하고 어두운 면에 대한 소문도 같이 접하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발의 피해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희망의 땅 캘리포니아로 가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조선사람에게 북간도는 우리 영토라는 인식과 함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친숙한 공간으로 인지되기는 하였지만 법적으로는 청국 영토에 속해 있으므로 조선이민의 삶의 근거지로서의 안정성에 관해서는 매우 불확실한 장

소였다. 그러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조선사람에게 북간도는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었다. 따라서 이주 목적지 선택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분석해 보는 것은 그들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이와 같이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이주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회생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 북간도 이주과정에서도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이주함으로써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생이 있었다. 다음을 보면, 이주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회생과 고생이 기술되어 있다.

겨울날 열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백의를 입은 말없는 군중은 혹 10여 명, 20여 명, 혹 50여 명씩 떼를 지어서 산비탈을 기어 넘어 온다.—거기에서 그들은 꾸준한 노력으로 중국인의 발뒤에 있는 산기슭의 불모지를 팽이와 호미질을 하여 손으로 심고 손으로 거두며 흔히 생을 유지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초근목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식량부족으로 죽었다. 부인, 소아뿐 아니라 청년들도 동사하였다. 그들의 비참한 생활 위에는 또 질병이 닦쳐왔다. 수명의 조선인이 맨발로 강변의 깨어진 얼음장 위에 서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두자나 깊은 얼음장이 섞인 강물을 건너가서 저편 언덕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을 신는 것을 본 적이 있다(北間島).

#### 4. 주관적 이미지와 정착에 미친 영향

같은 시대의 같은 공간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에서도 작가에 따라서 상이한 공간이미지를 제시한다. 여기에서 취급된 작품의 작가들은 1930년대 북간도의 부정적 측면을 다같이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수길의 북간도는 제2의 고향이고, 최서해의 북간도는 철저히 타향이다. 그런데 박계주의 북간도는 작품과 때에 따라서 고향과 타향의 양면성을 나타낸다.

##### 1) 주관적 이미지와 고향의식

조선이민들은 북간도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북간도에 대해 이주 전에 가졌던 공간이미지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대체로 그들의 북간도 공간에



대한 지각과 평가는 그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근거로 각자의 고향과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생활공간으로서의 경험은 조선에 두고 온 고향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이민의 삶을 상징한 간도문학의 원천적 주제가 고향이라는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이들이 지각한 북간도라는 공간은 고향의식이라는 여과장치의 산물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이민들은 이주 후 고향 조선과 북간도의 지역차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주 전에 지녔던 객관적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환경적 측면에서 그들이 지각한 북간도는 고향과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한 차이의 인식은 소설 北間島에 잘 표현되어 있다. 다음을 보면,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북간도 경관을 고향과 비교하여 '징글맞고', '음흉하며', '험상곳은' 것으로 지각하는 한편, 고향 경관은 '평화롭고', '그윽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그리고 북으로 올라갔다고 하나 그다지 심한 차가 있달 수 없는 위도선(緯度線) 상에 위치하고 있는 비봉촌과 종성부의 고향 마을이었다.

그러나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어쩌면 이렇게도 다를까? 옥토와 박토(薄土)라는 농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더구나 지질학상으로 두만강 이북이 지형이 낮다는 그런 따위를 창윤이 애초부터 알 까답이 없었다.

오직 인상이었다. 눈에 들어오는 자연의 모습과 풍토가 풍기는 분위기(중략).

이른 겨울이었다. 잎 떨어진 나무들이 설명한 가지뿐이었으나 같은 설명한 나무들이라든 북간도 일대의 나무는 징글맞도록 음흉스러웠다. 나무 숲에서 낮에도 짐승이 나오고 도둑이 그 속에서 득실거리는...

그러나 고향의 나무 숲속엔 평화와 그윽한 것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았다(중략).

그리고 투박하게 숨을 넣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덧저고리에 수건으로 귀와 머리를 막 싸매는 험상곳은 차림이 아니면 나다닐 수 없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집과 옷은 그렇지 않았다(北間島).

이와 같이 이주 전의 북간도 이미지는 고향과 대조되어 고향과 같음과 다름이라는 각자의 척도에 의해서 타향으로 변화되어진다. 북간도에서 개

인의 경험, 삶의 목표, 개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서 지각되어진 내용이 다시 고향의식에 여과되어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실망을 대부분의 이민소설에서는 조선과 다른 거칠고 냉랭한 자연환경, 특히 냉랭한 기후환경으로 상징하고 있다. 紅焰에서는 '빼허의 눈보라가 빼허의 생명들을 괴롭힌다'라고 하였고, 안수길은 北間島에서 '눈보라에 휘날리면서 넘는 두만강'이라는 표현으로 북간도가 조선이민에게 이상향이 될 수 없음을 추위로 상징하였다.<sup>16)</sup>

이주 전 조선이민의 대부분은 북간도를 일시적 도피처가 아니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는 정착지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북간도에서의 조선인은 중국인 지주의 소작인에 불과했고, 경작지를 얻기 위해 종종 자신의 딸을 중국인에게 파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소수민족으로서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느낀 깊은 소외감은 그 땅에서의 적응과 정착에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수 많은 조선이민들이 최초의 정착지를 떠나 여러 지역을 전전하였다고 한다.<sup>17)</sup> 그들이 북간도를 방황한 것은 북간도의 어느 곳도 그들의 고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돋이에서 북간도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주인공의 인상이다. 그가 북간도를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주 전 이미 것처럼 익숙한 곳처럼 보였지만 그와 친화될 수 없는 이질적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수의 모자는 일주일이 넘어서 북간도 왕청 '다랑재'라는 곳에 이르렀다.

회령서 두만강을 건너서 '오랑캐' 영을 넘어 용정에 다다를 때까지 그네는 다른 나라의 정조를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 용정 거리에 들어선 때는 조선 어떤 도회에 들어선 듯하였다. 푸른 벼들로 지은 중국집이며, 중국 관리의 너저분한 복색이며 짐마차의 많은 것이 다소간 어둑한 호지의 분위기를 보였다(중략). 그러나 용정을 지나서 왕청으로 들어갈 때 황막한 들과 험악한 산골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에 신경이 제티 제티하였다. 만수는 이미 짐작한 바이나 실지 목격할 때 "아아 황막한 벌이로구나!"하고 무심중 부르짖었다(해돋이).

위에서와 같이 이주하기 전에 조선이민이 가졌던 풍요의 이미지는 점차 사라지고, 정착과정에서

부적응과 소외, 역경을 겪는 동안 북간도는 빈곤의 땅으로 그 이미지가 변화되었다. 다음의 해돋이에서 본 조선인 촌락은 누추한 조선식 초가집으로 점철되고, 소작인으로서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식민주의의 이익을 위해 비참하게 유린되는 공간이다.

거개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중국 사람의 소작인으로 일평생을 지낸다. 간혹 전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쓸에 누만도 못하였다. 그네들 가운데는 자기의 딸과 중국 사람의 전지외를 바꾸는 이가 있다. 그네들은 일본과 중국 파의 이중 법률(二重法律)의 지배를 받는다. 아무런 힘없는 그네들은 두 나라 틈에서 참혹한 유린을 받고 있다. 그래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해돋이).

紅焰에서는 조선이민의 빈곤한 생활 모습이 설 명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게딱지’, ‘귀틀집’, ‘거름집’, ‘도야지굴’과 같은 말로 조선이민이 형성한 경관을 기술하여 그들의 빈곤을 강조하였다.

등진 산과 앞으로 낀 강 사이에 게딱지처럼 끼어 있는 것이 이 빼허의 촌락이다. 통틀어서 다섯 호밖에 되지 않는 집이나마 밭을 따라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모두 커 단 나무를 찍어다가 우물정(井)자로 틀을 짜 지은 집인데 여기 사람들은 이것을 ‘귀틀집’이라 한다. 지붕은 대개 쭈 짚이요, 혹은 나무껍질로도 이었다. 그 꼴은 마치 우리 내 지(간도서는 조선을 내지라 한다)의 거름집(堆肥舍)과 같다. 심하게 말하는 이는 도야지굴과 같다고 한다. 이것이 남부여대로 서간도 산골을 찾아 들어서 사는 조선 사람의 집들이다. 빼허의 집들은 그러한 좋은 표본이다(紅焰).

## 2) 주관적 이미지의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

### (1) 제2의 고향 : 적응, 그리고 정착

이주 후 일부 조선사람들은 북간도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역경과 좌절을 극복한다. 그들은 그곳의 환경에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서 적응하는 한편 문화를 이식시킨다. 그러므로 조선이민의 취락이나 경제활동, 관습의 실행 등에서 조선의 문화적 특질이 반영되었다.

北間島의 비봉촌의 경우를 보면, 서당이 있는 마을 서당골을 중심으로 몇 개의 부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서당골이 개척촌의 중심이 된 것은 조선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며 정신적 지주로 삼는 유교적 가치관이 취락구조에 반영된 것이다. 그들의 가옥 또한 조선식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실제로 옛 북간도 지방에 해당하는 韓中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전통가옥은 지금도 정주간이 있는 전형적인 관북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北間島나 紅焰을 보면, 이 정주간과 조선사람의 귀틀집의 모양과 재료, 건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조선이민들은 초기에는 개척되지 않은 개방지에 정착하여 중국민족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선문화를 북간도에 유지하고 이식시키는 데 있어서 기후적 차이 이외에 다른 장애는 없었다. 기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水田농업은 물론 각종 농업기술과 토지이용은 그들의 고향에서 행 하던 형식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그들은 기후적 적응이 가능한 경작양식을 도입하였다. 즉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지만 이에 따른 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업내용을 다각화시켜, 밭농사를 하거나 환금작물도 재배하였다. 비봉촌에서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행해졌으나 기후 환경의 영향으로 소출이 적었고, 생산된 쌀마저 값싼 조나 수수와 교환하여 조악한 식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예전처럼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극도로 빈곤하여, 낮은 생활 수준에 익숙한 빈곤의 문화를 유지하였다.

비봉촌도 남이 하는대로 이 손쉬운 방법을 쓰게 되었다 (중략). 조 이삭이 다듬이 방망이같이 축축 늘어졌다. 수수가 꺼미껴 알찬 결실을 키 높은 대위에 맺어 군군했다. 콩이 그렸고 얼마 되지 않은 논에서도 벼 이삭이 물결쳤다 (중략).

감자, 옥수수, 콩! 이걸 주민들의 주식량은 아니었다. 그러나 감자는 절량기(絶糧期)의 가장 귀중한 식량이었다. 그리고 작년은 풍작이었지만 전 해는 그렇지 못했다. 기근이라고는 할 수 없었으나 가을 계량까지 나락이 풍부히 남아 있지 못했다. 감자가 여름 체철에 거의 소비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중략).

옥수수도 그랬다. 여름철에 통채로 삶아 먹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생선이 귀한 이런 벽촌에서 그것들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생선 - 그것도 고등어만큼

씩이나 큰 소금에 절인 청어 - 그것은 노령 해삼 바다에서 잡히는 것이었다. 그런 청어와 바꿀 수 있는 옥수수였다(北間島).

暴風雨時代에서 보면, 주인공 세 사람은 농업과 목축업이나 사냥과 같은 일을 생업으로 삼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교육시켜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 성취에 관심을 기울이는 소사허의 조선이민들을 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견하였다.

세 사람은 한 달이 넘어서 북만주의 한 귀퉁이에 있는 '소사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소사허에는 조선 내 지서 들어간 동포들이 삼백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네들은 그 곳에 큰 학교를 세워 놓고 공부에 힘썼습니다.

“공부를 하라. 큰일을 하려면 공부를 하라, 모르는 사람에게 성공이 없나니라.”

이것이 그때 그네들의 표어이었습니다. 큰일 큰일 하는 큰일이 별것이 아니라 잘 살도록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네들은 한쪽으로 가르치고 한쪽으로는 학교 후원회를 조직하여 가지고 조선 내지며 원근 동네를 다니면서 후원원(後援員)도 모으고 후원금도 모집하였습니다(暴風雨時代).

같은 경우가 北間島에서도 나타난다. 상당한 개척 기간이 지나자 비봉촌<sup>18)</sup>의 정착민은 간도를 그들의 고향으로 인지하였다. 간도는 그들의 피땀으로 개척된 곳으로 혈육이 묻힌 땅이고, 혈육에 관한 추억과 연결되는 장소이며, 그들의 열망이 반영된 곳으로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 Terkenli (1995)와 마찬가지로 Sopher(1976)도 고향이란 안정과 정착, 그리고 망명과 불안정을 나타내는 양극의 사이의 어떤 지점에 위치한다라고 말한다.<sup>19)</sup> 이는 고향이라는 장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삶의 내용과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가 변화된다는 뜻이다. 다음을 보면 조선이민이 조국의 고향보다 북간도의 정착지를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고향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청국이민) 국권을 뒷받침한 실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피땀으로 개척한 공로가 있다. 조선 농민

이 만만히 물러설 까닭이 없었다. 고향이 박토러서만이 아니었다. 대원군 집정 이래 경복궁 중건 때문에 일어난 강제 부역과, 화폐 절하로 생긴 생활고, 그리고는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외척의 세도 아래 기를 펴지 못했던 가지가지 쓴 기억이 있는 고향에 발이 들러질 까닭이 없었다. 강제 부역도 감자나 조밥을 먹으나 생활고에 세도 척신의 눈꼴 사나운 일도 없었던 이 고향은 조선 농민의 인식처였다(北間島).

이러한 시각으로 북간도 공간을 바라보는 경우 그들의 공간적인 이미지는 다시 긍정적인 것으로 변한다. 즉 북간도가 소외의 공간이 아니고, “듭속하고 믿음직스러운” 포용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봉촌처럼 살기 좋고 인심이 후한 곳은 없다고 창윤이는 생각하게 됐다. 첫눈에 인상이 깊었던 홀 두루마기의 얇은 옷차림이나 문풍지의 방한(防寒) 설비도 그러면 빈한한 생활에서 나온 게 아닐까? 창윤이의 눈은 점점 고국의 땅, 부조의 고향의 깊게 감춰 있는 데를 파고들었다.(고국이고 고향 땅이고 벨 수 없어.) 겹타티 하고 거칠다고 느껴졌던 북간도의 풍토가 듬속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다(北間島).

## (2) 타향 : 부적응, 그리고 일탈, 유랑, 귀향

위와 같이 북간도를 고향으로 여기는 일부 조선이민은 잘 적응하고 정착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북간도에 관해서 타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적응과 정착에 실패하였다(그림 1). 그들은 조선으로 귀향하거나 절망 속에서 북간도와 시베리아 지방을 방황하였고, 일부는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등 사회적으로 일탈되고, 죽음에 이르기기도 하였다.<sup>20)</sup> 개인의 부정적 경험과 함께, 향수, 방향 감각의 상실, 소외감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북간도를 타향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조선이민은 중국과 본국과의 관계, 주변 국가의 정치·외교적 관계 등 정치지리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북간도라는 이민공간에서 빈번하게 거주지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정착을 어렵게 한 것은 중국인에 대한 만주이주의 장려와 조선인에 대한 동화 강요와 토지소유 제한 등이다. 그 결과 조선인은 소수민족이 되어 민족 간 갈등

이 심화되었으며, 개척한 토지를 잃게 되었다.

귀화의 강요에 대하여 조선이민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귀화함으로써 정착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며, 둘째는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다시 이동하는 것이다. 전자의 선택은 중국인이 되어 농민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여, 후자의 선택은 이 도시, 저 도시로 유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조선이민들은 민족 정체성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랑생활을 택했다. 일부 개척촌에서는 절충 방법으로 소수의 조선인을 귀화시켜 토지 소유권을 얻도록 하여 그것을 소작하는 형식을 택했다. 이렇게 귀화한 조선인은 조선이민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오히려 청나라 세력을 이용해 자기 민족을 압박하는 계층으로 전락하였다.

청국 정부의 이러한 간섭과 동화 정책에 대한 조선이민의 대응 양상은 北間島의 주인공 창윤 일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이 개척한 비봉촌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사실 창윤은 정착지 비봉촌을 그의 진정한 고향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북간도를 고향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지방의 말단 관청이 러시아 병정의 압박으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보니 법으로 생명 재산을 보호받을 길도 막연해졌다. 그들이 그런대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제 민족이 모여있는 대도시나, 정부 기관이 미비하나마 그런대로 러시아 군부(軍部)를 상대로 외교적 기능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중심지가 아닐 수 없었다. 지방의 토호나 양민들은 이런 곳을 향해 살던 곳을 버리고 뒤를 이어 떠나고 있었다(北間島).

故國을 보면 주인공은 북간도를 자신을 소외시키는 타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다시 귀환하는 경우를 그리고 있다. 그의 고향은 이주전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요인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북간도에서 경험한 소외된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과 고향에 대한 감정적 애착과 함께 고향이라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견인력에 실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실현될 수도 없는 희망을 갖는다.

이 모양으로 항방 없이 표랑하다가 지금 본국으로 들어오기는 왔다. 내가 찾아갈 곳도 없고 나를 기다려 주는 이도 없건마는 나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알 수 없는 무엇이 나를 이리로 이끈 것이었다(중략).

간도에서 조선을 항할 때의 운심의 가슴은 고생에 몰리고 물리면서도 무슨 기대와 희망에 찼다. 그가 두만강 건너편에서 고국 산천을 볼 때 어찌 기쁘지 뛰고 싶었다(중략). 진달래 봉우리 방긋방긋하는 오산을 바른 편에 끼고 중국 사람 차마발을 지나 동문 고개에 올라섰다. 그의 눈에는 넓은 회령시가 보였다. 고기비늘 같은 잇닿인 기와 지붕이며 사이사이 우뚝우뚝 솟은 양옥이며, 거미줄같이 늘어진 전봇줄이며 뚜뚜하는 자동차, 푸푸푸푸 하는 기차 소리며, 이전에 듣고 본 것이언만 그의 이목을 새롭게 하였다(故國).

이렇게 일부 조선이민은 귀향하였지만 많은 조선이민들은 간도에서 사회적으로 일탈되고 방황하고 있었다. 특히 광산이 많이 분포하는 간도의 서부지역은 농업이민이 많은 동부지역과 달리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도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故國을 보면 적응과 정착에 실패한 조선이민의 일탈된 모습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사람이 많다. 거개가 생활 곤란으로 와 있었고 혹은 남의 돈 지고도 망한 자, 남의 계집 빼가지고 온 자, 순사 다니다가 횡령한 자, 노름질하다가 쫓긴 자, 살인한 자, 의병 다니던 자, 별별 흉한 것들이 모여서 군데군데 부락을 이루고 사냥도 하며 목축을 하며 농사도 하며 불한당질도 한다. 그런 까닭에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없다. 힘센 자가 으뜸이요 장수며 패왕이다. 중국 관청이 있으나 소위 경찰부장이 아편을 먹으면서 아편 장수를 잡아다 때린다(故國).

다음은 紅焰에서도 극단적으로 일탈된 조선이민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서방이 삶의 좌절과 사회적 냉대로 살인이라는 범죄를 하게 된다. 그는 아내가 죽자 그의 딸을 소작료 대신 빼앗아간 중국인 지주를 살해한다. 다음은 그날의 자연경관에 대한 묘사이다. 북간도의 절망이 서북쪽에서 불어오는 세찬 회오리바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그의 절망과 좌절이 북간도의 흑한

과 세찬 북풍으로 가중되며,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파괴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문 서방의 아내가 죽은 그 이튿날 밤이었다. 그날 밤에도 바람이 몹시 불었다. 그 바람은 강바람이어서 서북에 돌리인 산 때문에 좁한 바람은 움푹도 못하던 달리소(문 서방의 사위 인가의 땅)까지 범하였다. 서북으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강 건너 높은 절벽을 대하여 강끝밖에 터진 데 없는 달리소는 강바람이 들어 치면 빠질 데는 없고 바람과 바람이 부딪쳐서 흔히 회오리바람이 일게 된다. 이날 밤에도 그 모양으로, 달리소에는 회오리바람이 일어서 낮 가리가 날리고 지붕이 날리고 산천이 울려서 혼돈이 배판 할 때 빙 세계가 트는 듯한 판이라 사람은 커녕 개와 도아지도 굴 속에서 꿈쩍 못하였다.

(중략) 우렁찬 바람에 휘날리는 눈발을 무릅쓰고 달리소 앞강 빙판을 건너서 달리소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림자가 있다(紅焰).

死刑囚도 조선이민의 삶의 고통과 우울, 그리고 절망을 상징화한 작품으로 이민공간의 비정함을 강조하였다. 박계주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간도에서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북간도의 냉혹함과 혼탁함,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뢰의 부재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작중 인물 왕덕은 마적단의 한 사람으로서 약탈과 방화와 살인을 저질러 왔다. 그는 한때 지식인이었으나 민족차별로 관리로서 등용되지 못한 반항으로 마적이 되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은 물음과 대답으로 북간도의 조선이민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고, 절망이 그들 앞에 가로 놓여 있음을 암시했다.

죽음?

내세?

영혼?

없다. 없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이렇게 부정해 버린다. 죽으면 그만 아니냐? 물질, 그렇다. 물질로 된 인간은 물질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死刑囚).

이러한 절망 속에서 그는 완전한 폐인이 되어 고국을 그리워하며 두만강을 건너려 했다. '물 속에서 구르다가 다시 물위에 몸이 떠올랐을 때 그는 한편 손을 물밖에 내어 밀고 그 흠을 보려했

다.'고 한다.

地獄에도 꽃은 핀다에서도 주인공 강달규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유랑하다가 죽음을 맞는다. 그는 부적응으로 자포자기하여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북간도에서 철저히 일탈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향 사람의 품에서 죽음을 맞는다.

성호 역시 쏟아지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며 하루 해가 맞도록 옥녀와 같이 칼끝으로 땅을 파서 강달규의 시체를 파묻고,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칼끝으로 (朝鮮人姜達奎之墓)라고 대강 새겨서 묘비(墓碑)를 살아 무덤 앞에 꽂았다.

그것은 뒷날 이 산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마적의 무덤이 아닌 것을 구별해 알리기 위해서 조선인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던 것이다.

-(중략)- 석양에 묘비의 그림자는 땅에 길게 뻗혀있다(地獄에도 꽃은 핀다).

## 5. 결론

사람들이 공간을 지각하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 문학지리적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인간중심적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리학이 공간과 거기에 거주하는 인간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학문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지리학과 문학이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은 바로 작품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사회적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간도 조선이민의 삶을 형상화한 리얼리즘 작가 최서해, 박계주, 안수길의 이민소설을 중심으로 1930년대 조선이민이 북간도라는 공간에 대해서 그들이 이주 전에 지녔던 객관적 이미지와, 직접적인 공간지각을 통해서 얻은 주관적 이미지의 특징, 그리고 주관적 이미지의 개별적 특징이 조선이민의 이주와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을 밝히려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간도 지역에 대한 객관적 이미지는 이

주 전에 접할 수 있던 정보와 지식을 근거로 형성된 것으로서, 이것의 부정적 측면은 간과되고 긍정적 측면만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주 의사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둘째, 북간도로 이주 후 북간도에 대한 객관적 이미지는 고향으로부터 축출되었다는 소외감, 미래에 대한 공포, 고향의 상실, 개별적 체험 등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조선이민의 북간도에 대한 주관적 이미지는 정착과정에서의 개별적 체험과 환경적 적응 양상의 차이에 따라서 개인별로 그 유형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개인 간직한 이미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의 변화 따라서 변화되어 일관된 특징을 유지되지 않는다.

넷째, 북간도의 이미지는 이중적인 것으로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친숙한 장소이기도 하며 소외의 장소이기도 하고, 풍요의 장소이자 빈곤의 장소도 되며, 희망의 장소이자 절망의 장소로 변하기도 하고, 고향공간이 되기도 하고 타향공간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주관적 이미지의 특성은 이주와 정착에 영향을 준다. 긍정적 이미지를 소유한 조선 이민들은 북간도를 고향과 마찬가지로 인지하며, 적응하고 정착하여 제2의 고향을 건설한다. 반면에 부정적 이미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타향과 같은 공간으로 지각함으로써 좌절하여 사회적으로 이탈되거나 유랑한다. 이들의 일부는 방랑생활 끝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귀향한다.

공간에 대해 지각하고 인지하는 방법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다. 장소에 대해 이미지를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장소를 집단의 사회적 삶의 공간으로서 이해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공간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적 지리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과제를 탐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문학작품이라는 유용한 자료가 있다. 이것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고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동시대의 작가들의 작품을 조사하거나, 서로 다른 시대의 같은 지역에 관하여 쓴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조사하는 등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연구는 이러한 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다.

## 註

- 1) Fullilove(1996)는 고향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친숙함(familiarity)이란 사람들이 그들 주위 환경에 대한 상세한 인지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소에 대한 애착(attachment)은 사람과 소중한 장소 사이의 상호 관리 지향적(mutual caretaker bond) 심리이며, 장소에 대한 정체성(identity)은 자신들이 삶의 과정을 통과하여 온 장소를 통해서 자신을 인지함으로써 얻는 동질감이라고 말한다.
- 2) 한상복(외), 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 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 지역연구 총서 1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충걸(외), 1993, 백두산과 연변 조선족 : 지리학적 연구, 백산출판사, 서울; Kim, Ki-Hoon, 1992, *Japanese Policy for Korean Rural Immigration to Manchukuo, 1932-1945*, Dissertation Thesis, University of Hawaii.
- 3) Porteus, J. D., 1976, Home: The territorial core, *Geographical Review*, 66, 383-90.
- 4) Seaman, D., 1976,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of imaginative literature : A Commentary, in Gary T. and Golledge, R. G.(eds.), *Environmental Knowing : Theories, Research, and Methods*, Moore, Stroudsburg, Pennsylvania, Dowden, Hutchinson & Ross, 288.
- 5) Tuan, Yi-Fu, 1976, Literature, experience, and environmental knowing, in Moore, G. T. and Golledge, R. G. (eds.), *Environmental Knowing : Theories, Research, and Methods*, Stroudsburg, Pennsylvania, Dowden, Hutchinson & Ross, 268.
- 6) Osborne, B., 1996, Texts of place: 'a secret landscape hidden behind the everyday', *Geojournal*, 38(1), 29-30에서 재인용.
- 7) Pierie, G. H., 1982, Mostly 'Jubek' : urbanism in some south african english literature, *South African Geographical Journal*, 64(1), 69에서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지리학 자료들은 제대로 주민의 삶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소설에 반영된 주민의 삶을 조사하였다.
- 8) Lanegrans, D. A., 1972, The pioneer's view of the frontier as presented in the regional novel 'Giants

in the Earth', *International Geography, 22nd International Geographical Congress*, 1, 350-352.

- 9) 이 글에서 고딕체로 쓰여진 것은 소설의 제목을 의미한다.
- 10) Kim, Ki-Hoon, 1992, 18-22.
- 11) 한국문학연구회, 1993, 1930년대 문학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 평민사, 35.
- 12) 오양호(1988, 41)는 간도에 거주하던 조선 문인들의 작품을 移民文學이라고 지칭하였다.
- 13) 김재용(외), 1993, "궁핍한 삶에 대한 분노의 폭발: 최서해," 한국근대문학사, 한길문학사, 서울.
- 14) 김윤식·정호웅(편), 1992, 한국리얼리즘소설연구, 문학과 비평사, 서울, 32-34.
- 15) 吳養鎔, 1988, 韓國文學과 間島, 서울: 문예출판사, 69-76.
- 16) Shin, Myongsup, 1976, Geographical knowledge in three southwestern novels, in *Environmental Knowing: Theories, Research, and Methods*, in Moore, G. T. and Golledge, R. G.(eds.)에서 그는 문학작품에서는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의 자연 환경을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의 그 공간에 대한 반응을 제시하거나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예고하는 경우를 밝혔으며, 문학작품의 환경 묘사가 개인의 정서나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형을 제시하였다.
- 17) 안수길의 소설 '北間島'에서도 주인공 이한복 일가는 최초의 정착지로부터 세차레나 재 이동하였는데 이는 선택된 목적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18) 작품 속의 비봉촌은 용정의 남쪽 호비산 인근으로 추정되나 행정적으로 존재하던 지명은 아니다(이은숙, 1995).
- 19) Sopher, D. E., 1976, The landscape of home: myth, experience, social meaning, in Meining, D. W.(ed.),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Landscapes*, NY: Oxford University Press, 129-153.
- 20) 이은숙(1996, 37-64)은 崔曙海의 단편소설에 나타나는 북간도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인지의 차이를 대조함으로써 북간도 공간의 이중성을 제시하였으며, 한편 이민 전후의 이미지 차이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 文 獻

- 계인회, 1991, 현대소설을 통해서 본 서울근교의 도시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곽근(편), 1987, 최서해 전집 상, 하, 문학과 지성사, 서울.
- 박계주, 1974, 박계주 선집, 한국문학전집, 27, 선일분화사, 서울.
- 박상봉, 1990, "간도 이주민의 수난의 역사를 반영한 안수길의 해방전 소설," 조선학연구, 3, 연변대학출판부, 연길, 111-126.
- 심혜숙, 1992, "조선족의 연변이주와 그 분포 특성에 관한 소고," 문화역사지리, 4,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321-332.
- 안수길, 1959-1961, 북간도, 삼중당, 서울.
-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서울.
- 이은숙, 1991,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4, 147-166.
- \_\_\_\_\_, 1993, "文學作品 속에서의 都市景觀: 蔡萬植의 濁流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研究, 5, 상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27.
- \_\_\_\_\_, 1995, "조선인 이민의 북간도 정착과정과 공간인지: 안수길의 '북간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7, 상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5-105.
- \_\_\_\_\_, 1996,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이민의 이미지: 최서해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상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7-64.
- \_\_\_\_\_, 1998, "1930년대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이민의 경관인지: 박계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0,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39-54.
- 이재선, 1979, 한국현대소설사, 흥선사, 서울.
- 곽근(편), 1987, 최서해 전집(상, 하), 문학과 지성사, 서울.
- 최유찬(외), 1994, 문학과 사회, 실천문학사, 서울.
- 한국문학연구회(편), 1993, 1930년대 문학연구, 평민사, 서울.
- Fullilove, M. T., 1996, *Psychiatric Implications*

- of displacement: contributions from psychology of pla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12), 1515-1523.
- Kim, Ki-Hoon, 1992, *Japanese Policy for Korean Rural Immigration to Manchukuo, 1932-1945*, Dissertation Thesis, University of Hawaii.
- Pocock, Douglas C. D., 1981, Introduction: imaginative literature and the geographer, in Pocock Douglas, C. D. (ed.),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Essays on the Experience of Place*, Croom Helm, London.
- Porteous, J. D., 1985, Literature and humanist geography, *Area*, 17(2), 117-122.
- Salter, C. L., 1981,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as a primer for cultural geography, in Pocock Douglas, C. D. (ed.),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Essays on the Experience of Place*, Croom Helm, London, 142-158.
- Salter, C. L. and Lloyd, W. J., 1977, Landscape in literature, *Resource Papers for College Geography*, 76(3),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Washington, D. C.
- Terkenli, Theano S., 1995, Home as a region, *The Geographical Review*, 85(3), 324-334.
- Tuan, Yi-Fu, 1976, Huma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y*, 66, 615 - 632.
- , 1978, Literature and geography :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in Ley, D. and Samuels, M. S. (eds.),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Maarouga Press, Inc., Chicago, 194-206.